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11. 15.(금)

서울시 중구 대형마트, 일요일에 영업한다!

- 11월 넷째주부터 서울시 중구 지역 대형마트 일요일 이용 가능
- 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타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1월 14일 서울시 중구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매주 주말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 점포 2개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일상속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마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 준대규모점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으며, 이번에 서울시 중구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중구는 서울 지역 내에서 세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가 되었다. 특히,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산업부는 중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왔다.

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유의택 (044-203-43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